

기고

박인철 완도군의회 의원



국립난대수목원 완도로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산림청은 제4차(2019~2023)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남부권 지역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안서와 현장심사를 통하여 8월 중 조성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후보지로 전남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한 5개군과 경남 거제시가 신청하였으나 그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우리군과 거제시 2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치열한 유치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최대 2,000억 원 규모로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산림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과 관광자원의 초석을 다질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재정자립도 열악한 우리군으로서

는 여러 가지 장점과 국가사업 유치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권 관광자원을 확충과 일자리창출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있는 국립난대수목원이야말로 반드시 유치해야 할 절대적 가치가 있는 사업임이 틀림없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분석에 의하면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는 2만8천명, 경제적 효과는 2조원에 달한다. 연간 방문객 또한 150만명 등 인구 증가도 예측하고 있다.

완도군의회에서도 제271회 임시회에서 우리군에 미치는 잇점과 지역경제등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완도군의원과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국립수목원 완도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완도수목원은 2,033ha의 드넓은 면적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사계절 푸른 난대숲과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다도해상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유일무이한 국내 최대 난대림 군락지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탄소저장 대 표 수종인 붉가시나무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아도피와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베타피넨(β -pinene) 함량이 높은 동백, 황칠 등 희소가치의 난대수종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이 바다로 해안과 접하여 공기 중의 바다 미네랄이 풍부할 뿐 만 아니라 자생 식물 770여종을 비롯하여 희귀동식물 872종 등 4,150여종이 분포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시험·연구를 위한 난대림 연구의 성지이기도 하다.

도 하다.

또한 10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성립지의 상태를 유지하며 원시 난대림으로 보존되어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시 준공과 동시에 즉시 개장이 가능하고 단기간내 수목원의 조성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국립난대수목원으로서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점 등을 내세워 완도군은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 출신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유치의 당위성과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완도군은 청정바다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건강과 치유 그리고 관광과 바이오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국립난대수목원이 우리 군으로 유치된다면 해양과 산림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관광치유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고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한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완도군민 한분한분의 염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절기상 대서와 장마가 이어종을 비롯하여 희귀동식물 872종 등 4,150여종이 분포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시험·연구를 위한 난대림 연구의 성지이기도 하다.

社說

청소년이 죽음을 생각하다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33.8%는 평소 죽고 싶다는 극단적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심히 걱정스럽다. 기성세대들이 허투루 흘러 들을 일이 아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형식에 맞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인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영역별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생 2745명, 중학생 2858명, 고등학생 3456명 등 총 9060명이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33.8%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8.6%는 가끔 생각한다. 5.2%는 자주 생각한다 고 답했다.

이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주된 이유는 가장 많은 37.2%

가 학업문제(학업부담·성적)를 꼽았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9%, 가족 간의 갈등 17.9% 순이었다. 아동, 청소년은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자유로운 생활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전체의 절반인 52.4%에 달했다. 특히 고교생은 68.3%가 수면시간 부족을 호소했다.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고등학생은 54.8%, 중학생 40.4%, 초등학생 34.5%였다.

청소년 중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5%였다. 고교생 34.9%는 운동을 일주일에 1회조차 하지 않았다. 중학생은 24%, 초등학생은 8.7%였다.

아동,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이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청소년들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품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는 휴가철이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 가는 휴가는 정말 즐겁다.

산과 바다, 계곡 등 시원한 물줄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떠난다. 이런 휴가철 이동수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한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는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경형승합자동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차량화재는 주로 엔진부분의 전기배선 불량으로 인한 합선, 불꽃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장식을

위한 전기배선에서 발생한다.

또한 피서철 장기간주행으로 인한 엔진과열, 높은 온도와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에 의해서도 차량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정비도 병행하는 것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는 길이라 생각된다.

차량화재는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유류와 가스의 폭발로 급속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용 소화기의 능력을 하찮은 것으로 인식해 차량에 휴대하지 않고 다니거나 휴대해도 보관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화재에 대하여 손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마다 최소 1대 이상 휴대하고 올바르게 사용 관리하는 것이다.

한석서 / 강진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치매 노인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뱀 수 없는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전남 또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지역으로 치매 노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치매노인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첫째, 배회감지기 착용이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치매환자 실종신고 시 실시간으로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기기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문의하면 된다.

두 번째,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는 경찰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와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 혹은 안전드림 앱에서 신청하거나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방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옷에 부착하여 실종되었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들의 안전한 가정 복귀를 위하여 모두가 나서서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거리에서 곤경에 처한 치매노인을 본다면 곧바로 112 혹은 182에 신고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박수현 /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반)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